

소송전·재검표 진흙탕 싸움되나...미 대선 혼돈 속으로

트럼프, 위스콘신 재검표 요구·미시간 등 개표중단 소송 제기 바이든, 곳곳 역전 승리 낙관...확정 지연시 사회불안 불가피

미국이 11·3 대선 이후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우편투표 급증으로 개표 완료가 늦어지는 가운데 핵심 승부처에서 박빙의 대결이 벌어져 투표 종료 후 하루가 지나도록 당선인조차 확정짓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뒤심을 발휘하며 치고올라와 대권을 넘볼 수준까지 이르자 우편투표를 문제 삼아 사실상 대선 불복인 재검표와 소송 카드까지 꺼내들고 판 흔들기에 나섰다. 어렵사리 개표가 완료되더라도 '포스트 대선 정국'은 두 후보 간 진흙탕 싸움 속에 법원의 손에 의해 당선인이 결정된 2000년 재검표 논란의 악몽을 반복할 공산이 커졌다. 당분간 미국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개표 초반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밖 우위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 중 5개 주에서 리드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필수 방어지역이던 플로리다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개표율이 올라갈수록 상황이 변했다. 바이든 후보가 맹추격전을 벌이며 북부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3개 주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주에서 개표 초반 두 자릿수로 앞섰지만 지금은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역전했고, 핵심 승부처 펜실베이

니아에서도 격차를 좁히고 있다. 또다른 경합주에 리조나를 놓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리스트벨트까지 뺏기면 패배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문제 삼았다. 평소 우편투표를 사기투표라고 주장해온 그가 우편투표 때문에 표를 부당하게 뺏기고 있다며 러스트벨트 3개 주를 대상으로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날 위스콘신의 재검표를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위스콘신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0.6%포인트로 누른 것으로 집계했다. 트럼프 캠프는 또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를 대상으로는 개표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 마디로 러스트벨트 3개 주의 개표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자, 이들 3개 주 개표가 끝나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이어지는 결과를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삼급 구조상 연방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없어 1·2심을 거쳐야 한다. 대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시 불복하며 소송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예상이 현실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된 연방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관 구성이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바이든 캠프는 막판 역전극에 고무된 듯 "승리의 계도를 올랐"다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대응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앞 광장에서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승리한 바이든을 응원하기 위해 춤을 추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에서 개표 후반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당하자 개표 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바이든 캠프의 밥 바우어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상했다고 한 뒤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그는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패배 예감했나...“소송이 무슨 소용”

소송·재검표 회의적 입장 밝혀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가 4일(현지시간) 개표 과정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을 요구하며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있는 접근이 무슨 소용'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트윗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의미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며 "우리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 또 대통령 선거 자체에 이미 손상이 가해졌다. 이것이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위스콘신 등 일부 경합주에서 개표 초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가 뒤늦게 우편투표 용지 개표가 시작되면서 역전당했다. 트럼프 캠프는 곧바로 미시간주를 상대로 개표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위스콘신주에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트럼프 캠프는 성명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의미있는 접근'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개표 과정에 공화당 측이 제대로 참관을 하지 못했

다는 것이다. '의미있는 접근이 무슨 소용'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놓고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확대한 것 자체가 '중대한 사기'라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던 것에 비춰 법무팀이 제기한 소송 사유가 고작 '의미 있는 접근'이라는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CNN은 소식통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법무팀 전략을 그다지 열정을 보이지 않은 채 승인했다"며 "대통령은 법무팀이 전략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길 할 테지만 성공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AP통신도 트럼프 캠프 측 주장과 달리 실제 개표소에서는 양당 참관인이 다 목격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결과에 대한 낙관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결국 이번 선거가 사기라는 점을 재차 주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국민의힘 “한미동맹”

정치권, 최종 결과 예의주시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에 근접하면서 우리 정치권도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한미동맹 강화 원칙을 강조했다.

김태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남북 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안, 한반도 중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느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든 한미동맹은 강화돼야 하고 통상교섭체널 확보가 핵심적인 대외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미국에서 4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툭다운' 방식으로 이끌어갔던 북미 비핵화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며 "트럼프 정부의 북미관계 성과를 기반으로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송 의원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비핵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북핵 상황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축소 같은 현안 경우엔 민주당 정부와의 대화가 트럼프 정부보다 순조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순 당내 한반도 TF(태스크포스)의 방미를 시작으로 양국 의원 외교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결과가 한미동맹과 안보, 통상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종민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정부가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통상 문제에서도 사전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열 의원은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 시 문재인 정부가 애착을 가졌던 미 북 정상회담 중심의 톤다운 외교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 우리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내 정치 상황과도 연결 지어 미 대선의 혼전 양상을 주목했다.

김비대위원장은 "분열된 국민과 나라를 통합하는 것이 미국의 큰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미국 선거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론이 두 갈래로 갈리면 나라가 안정을 못 찾고 혼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자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중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고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동묘지에 장하는바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개장 공고이후 상기 자연묘에 사람이 근접하여 누락되는 분묘나 누락으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연마루는 전도로 자산면 상동리 산 112번지, 산 112-1번지

2. 분묘기수 : 총 47기

3. 개장시유 : 개장사업

4. 이장장소 : 전남 무안군 일모읍 죽사동길 179-126 한곡리계단 무묘관

5. 안장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무연고 분묘 : 연고자와 합의를 개장처리
■ 무연고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세청에 의거하여 임의개장

8. 신고처 : 정관동 (010-3623-5221)

9. 신고요령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 신고서를 준비하여 신고인에게 제출

2020년 11월 6일
공고인 장정재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0년 10월 26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사오니,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주식회사 가드
광주광역시 서광주로 171, 302호(마북동, 자연저빌당)
청산인 윤원식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0년 10월 26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사오니,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주식회사 자배
광주광역시 서광주로 171, 302호(마북동, 자연저빌당)
청산인 윤원식

산행안내

11월7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1월 7일(토) 전북대둔산·돛대봉 단풍산행, 봉선동 롯데마트앞 07:10, 진월 동식자재마트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 정문 07:50, 비엔날레주 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주흥플러스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1월8일(일)

▲광주자연보전당사회 11월8일(일) 작은가야산(경남 합천), 염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흥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당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1월22일(일)

▲광주자연보전당사회 11월22일(일) 연석산-운장산(전북 완주), 염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흥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당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